

춘천시의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춘천시는 최근 사업비 4천만원을 투입해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시스템을 구축했다.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시스템 구축을 통해 춘천시 재난지원금 지급 효율이 극대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은행카드사 연계

프로그램과 통합 DB를 공무원이 직접 개발해 소요 예산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춘천시 재난지원금 지급시스템은 농협카드, 신한카드, 농협BC카드와 연결, 온라인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농협카드와 신한카드 2곳은 정부지원금 지급 당시 춘천 내 점유율이 절반 이상이였다.

정부지원금 카드충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카드 충전액 507억원 중, 농협카드 146억원(29.1%), 신한카드 130억원(25.7%), BC농협카드 10억원(2%)으로 점유율은 56.8%에 달한다. 이뿐만 아니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외에 농협은행 48개소, 신한은행 7개소를 신청 창구로 추가 확보할 수 있는 효과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춘천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면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되도록 시민들은 온라인이나 ARS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9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소
유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할 수 있다. 세대
주만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농협) <https://card.nonghyup.com> / (ARS : 1644-5330), (신한) <https://shcard.io/Chuncheon> / (ARS : 1522-7777, 1544-7000), (농협BC) <https://go.bccard.com/chuncheon> / (ARS : 1566-4800, 1588-6374) ●

힘내라 춘천,
힘내라 대항민국!

“ 시 정부는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1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원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께 2차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